

1. 효행 및 열녀

1차 자료조사에서는 효행과 열녀를 각각 분리해서 조사하였고 원고도 효자와 열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그러나 1차 자료조사후 누락된 추가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효행과 열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됨으로서 본편을 효행 및 열녀편으로 묶어서 수록하였다. 아울러 2차로 조사된 자료를 2차 조사분으로 분리해서 수록하였으며 2차 자료는 효자와 열녀를 한데 묶어 수록하였다. 그리고 원고마감에 쫓겨 2차 조사자료는 1차 조사자료와 같이 "가나다"순으로 분리하지 못하였으며 한글로의 번역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1] 강 이 기

천안의 선비 강 이기는 본래 아산사람이었는데 천안에 옮겨와서 살게 되었다. 그의 본관은 진주이며, 임진왜란에 공훈을 세워 승지 벼슬을 추증한 바 있는 창암 강 봉수의 8세손이다.

강 이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점점 자라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섬기는 예절이 어른과 같았다. 부모님이 병환이 나시면 울면서 먹지 않았고 부모님이 나들이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팡이를 붙들고 함께 모시고 다녔으며 한 개의 과일이나 한 마리의 생선이라도 얻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께 갖다 드리니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겨 효동이라 칭찬했다. 그가 결혼한 뒤에는 그 아내와 더불어 더욱 성의를 다하여 맛있는 음식과 의복으로 봉양하였으며 비록 가난하였지만 모든 것이 입에 맞고 웃도 알맞도록 해드렸다.

그 아버지가 노쇠로 병세가 위독하여 약의 효과가 없으므로 재실을 설치하고 백일동안 하늘에 기도하고 산에 제사하여, 가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밤낮으로 근심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병을 대신 앓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위독하여 가므로 한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에 흘려 넣으니 겨우 반나절을 연명했으나, 잠시 후에 또 다시 기절하므로, 계속하여 세 손가락을 끊어 이미 싸늘해진 입에다 피를 흘려 넣으니, 문득 목구멍 사이에서 숨을 토해 내면서 따스한 기운이 완연해져 다시 소생하여 5일간을 연명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의 아버지는 목구멍 속으로 분명하지 못한 소리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이 이미 다했다. 네 손가락이 몇 개나 남았느냐? 남은 몸을 이 이상 더 상하지 않게 하여 온전히 보존하여야 효도하는 것이니라" 하고 숨을 거두었다.

5일간을 연장한 것은 정성이 하늘에 통하여 굽어 살피심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한 손가락을 끊기도 어려운 일인데 세 손가락을 끊었으니 그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였던 것이다.

운명하자, 염습하는 물건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예법에 어긋남이 없게 하였고 빈소를 마련한 뒤에도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여 수척한 모습을 본 조객들은 모두 놀랐다. 장례를 치룬 뒤에는 제사 음식이 지극히 정결하였으며, 산소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살펴 보았고, 3년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않으며, 오직 밥과 채소만을 간소하게 먹었다. 이와같이 행실은 늙어서도 어릴 때와 다름없이 부모를 사모하고 그리워 하였던 것이다.

'학산거사'라는 분은 말하기를

"내 평생에 남의 착한 일을 말하기 좋아 하였으며, 오직 초야에 한 사람의 선행이라도 혹시 버려질까 두려워하여 남의 지극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문득 그 사실을 구하여 보았는데, 대개의 경우에 왕상의 잉어와 맹공의 죽순을 말하지 않는 자는 거의 드물었다. 나는 속으로 의혹을 하면서도 감히 한 세상을 속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옥돌과 서로 혼동될까 두려워 했다.

이제 강 이기의 가전을 읽어보니 그 기록된 바에 부모를 섬기는 행실과 의리가 처음부터 세속의 놀랍고 이상한 사실이 없고 오직 지성에서 한결같이 나왔으며, 정성이 이르는 바에 의하면 신명을 감동시키고 천지를 깨우칠 만하였다. 이기가 능히 그 아버지로 하여금 두 차례의 절명에서 다시 소생하게 한 것은 어찌 의혹이 없으리오마는 이와같이 된 것은 곧 그가 참다운 효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가난한 농부로서, 구중궁궐의 특수한 표창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소문을 영세 무궁도록 전파하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기의 아우의 아내 이씨도 열녀의 행실이 있어 같은 날에 은총을 입었으나, 한가문에 열녀와 효자가 났으니 얼마나 성대한 일인가? 밝은 조정이 선한 이를 표창하고, 풍속을 장려함이 또한 지극하다." (송정4 갑자 12월 일(서기 1864년 고종 1년) 서하 임 현회 짓다)

이와 같은 강 이기의 효성에 감동한 충청도의 선비들은 이 두손을 대표로 하여 그를 표창해 주도록 관가에 진정서를 올렸고, 철종 10년(1859년) 2월 14일에 임금님이 지방 시찰을 나오셨을 때에 이 두손등의 선비들이 직접 임금님께 상소하여, 그해 3월 16일에 강 이기에는 복호의 표창을 내리게 하였다. 복호라 함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실이 뛰어난 집안에 대하여 세금(호세)을 면제해 주는 표창 제도를 말한다.

그의 정문이 아우인 이덕의 아내 열녀 이씨의 정문으로 함께 인주면 도흥리 2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때의 감동적이고 효심어린 이야기를 지금도 그를 찾는 사람들의 심금에 전해주고 있다.

[2] 김 옥 레

아산군 신창면 석곡리에 가면 김 옥레여사의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세상에는 착한 일과 효행을 많이 한 사람이 드물게 알려져 나는 이 김 옥레여사의 일생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김 옥레여사는 어려서부터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였고, 부모에게 극진하여 동네에선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다.

16세 되던 해에는 김 여사를 눈여겨 보고 그의 행실이 올바르고 예의가 밝음이 마음에 든 전씨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와 16세엔 전씨 집안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다.

시집을 가보니 시할머님과 시부모님이 계셨고 집안도 좋은 편이어서 김 여사는 살기에 부족함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뒤 시어머님은 그의 막내 아들을 낳았다. 즉 김여사의 시동생을 낳으셨던 것이다.

그 후 시어머님은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자리에 눕고 김여사는 나이 어린 시동생을 극진히 대하였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막내아들이 크는 것을 채 보지도 못한 채 출산 후 2년뒤 세상을 떠나셨다. 김여사의 고통이 다할 날은 그치지 않고 그해 시아버님 마저 돌아가셨다. 게다가 남편은 병석에 눕게 되고 김여사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그 고통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앓고 있는 남편과 3살짜리 철없는 시동생뿐이었다. 망령이 든 시할머님까지. 그러나 김여사에게도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은 컸다. 시집 온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자식을 못 낳았으니 항상 고개를 숙이고 지내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김여사는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잘 견디었다. 시동생은 다행스럽게도 착하고 양전하며 별 큰일 없이 커갔다. 김여사는 정성을 다하여 시동생을 독선생으로 공부시키고 8살에는 보통 학교를 보내는 등 교육의 필요성을 남들에게까지도 일깨워 주었다. 14세 되던 때 시동생을 장가 보내어 그의 자손을 양자로 삼아 표창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 받게 까지 되었다.

김 옥레여사의 비는 그의 문중에 의해 세웠다고 한다. 그의 비문을 소개한다.

"하늘이 내린 어진 마음이요, 천륜의 모범이라 길이 후손에게 전하고자 이 비를 세웠다."

우리는 그냥 흘러 버릴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3] 김 현

국난을 당했을 때 참다운 충신이 나온다 한다. 이는 아무리 많은 충신이 있다하더라도 시련이 없는 평온한 시대에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수많은 효의 대표자들은 어떠한 때에 효를 실행했다. 그 예로 김 현선생의 뒤를 쫓아 보기로 하자.

당시 그의 아버님 되시는 김 인지선생께서는 제용감 봉사 벼슬에 계셨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의 어머님께서 몸이 약해 일찍부터 몸져 누워 계셨다. 그는 어릴때부터 효심이 뛰어나지라 어머니에 대한 정성은 지극하였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한 후 먼저 어머니께 달려가 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상을 들여 오면 어머니를 부축하여 진지 드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종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의 식사가 다 끝난 후에야 제 방으로 가 식사를 하였다. 이러기를 점심, 저녁으로 보살펴 드렸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어린 아들의 그토록이나 자신을 위해 애쓰는 것이 너무나 고마와 눈물이 글썽해서 밥을 넘기지 못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앓아 천지신명께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천지신명도 이때는 무심했던지 날이 셀때까지 고박 밤을 새운 그의 정성은 아랑곳 없이 새벽 미명에 어머니는 세상을 뜨시고 말았다. 청천벽력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그의 슬픔은 너무도 컸다. 며칠을 슬픔에 잠겨 단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아버지 김 인지선생께서도 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

그러나 비운은 계속되는 것인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또 병을 얻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일이 일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길가에는 피난민들로 가득차 있었다. 청병들은 우리 땅에 들어와 온갖 재물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부녀자를 농락하고 관리를 보기만 하면 학살하는 등 갖은 횡포를 부렸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병중이면서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정사를 돌보니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이를 보다못한 가족들이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 것을 극구 권했으므로 김 인지선생께서도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권유에 못이겨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였다. 좋은 날을 잡아 김 인지선생께서는 아들 김 현과 같이 하향길에 나섰다. 곳곳에 보이는 마을들이 그전엔 평화롭게만 보였건만 청병들이 휩쓸고간 마을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다. 곳곳에 통곡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김 인지선생과 아들 김 현은 이를 개탄하며 시골로 향해 힘없이 걸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 변이란 말인가? 다름 아닌 험상궂은 청병들의 무리와 마주친 것이다. 관리만 보면 마구 죽이는 청병들인지라 앞에 오는 행차가 관리의 행차인 것을 알아채고 앞을 가로 막았다. 그리곤 병때문에 쇠약해져서 뼈만 남은 김 인지선생의 몸에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내놓으라 소리를 쳤다. 그러나 김 인지선생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네 이놈! 오랑캐가 감히 누구 앞에서 횡포냐! 썩 물러가라!"

하고 땅이 울린 듯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갖은 욕을 하며 김 인지선생을 죽이려고 그 시퍼런 칼을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아들 김 현이 번개같이 뛰어 들었다. 아버지 대신 자신이 칼을 맞고 쓰러진 것이다.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 부모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일-에 무지한 청병들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고 병든 김 인지선생을 무사하게 시골로 보내 드렸다.

난리가 평정된 후 숙종 임금은 김 현선생의 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고향인 아산 대동애 효자 정문을 세워 그 충천대효를 길이 표창하셨다.

실로 효의 위기를 맞은 우리들의 세대에 있어 길이 본받을 만한 효자인 것 같다. 김 현선생처럼 부모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일은 못할지언정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삼가야 하겠다. 그의 효자 정문은 현재 충남 아산군 음봉면 송촌리에 소재하고 있다.

[4] 맹 사 성

맹 사성은 고려말 전교부령을 역임한 맹 희도의 아들로 공민왕 8년(1359년)에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신창, 호는 고불이다. 우왕 12년(1386년) 문과에 장원급제 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 태종때에는 대사헌으로써 태종의 부마인 조 대림의 죄를 문책하다가 오히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당할 뻔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그의 강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때에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면서 국왕을 잘 보필하여 세종문화를 빛나게 했으며, 국사에 온 힘을 다 쏟다가 세종 20년(1438)에 돌아가시니, 세종이 친히 임상하였으며 문정공의 시효를 내렸다.

맹 사성은 태종실록을 감수했고 팔도지리지를 만들었다. 향약을 정리했으며 시문에도 능하여 강호사시가 4수가 전한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7일간 단식했으며 3년간 죽을 먹으면서 묘앞에서 시묘를 했다.

사생활도 말할 수 없이 검소했으며 천성이 강직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청백리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맹 사성의 고택인 행단이 아산군 배방면 중리에 사적 109호로 지정되어 있다.

맹정승은 궁궐에 다닐 때도 검은 소를 타고 다니셨다. 당시의 정승이면 사인교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는 항상 검소하고 또 서민들을 생각하여

"아무리 고관이라 한들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배부르고 편할 수야 있는가

....."

하시며 언제나 그 생활은 서민적이었다.

어느 날 조정에 별일이 없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오랜 시간을 책을 읽다가 머리가 식혀 볼 겸 밖으로 나왔다. 싱싱한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고 울긋불긋한 진달래가 물들어 배방산은 온통 진달래밭이었다.

맹 고불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설화산엘 오르고 있었다. 얼마쯤이나 올랐을까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고 돌연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검은 산짐승이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 산짐승을 처음 보는지라 무섭기도 하고 또 낯은 아이들이라서 이 검은 짐승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니, 이 검은 산짐승은 성을 내며 달려들었다. 이 청년들은 작대기로 휘두르며 이와 대항하는데, 짐승과 청년들은 서로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이었다. 마침 이러한 위험한 광경을 본 맹 정승은 그 앞으로 가까이 갔다. 청년들은 깜짝 놀라 모두 작대기를 땅에 놓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검은 짐승은 맹 정승의 옆으로 감돌면서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 모습을 알아 차리고,

"너희들은 어서 가서 땔나무나 하거라."

하고 그 검은 짐승의 등을 어루만져주니, 이 짐승은 더욱 좋아하며 핥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며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았다. 맹 정승은

"이상한 짐승도 다 봤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청년들로부터 살려주어 그 감사하는 보답으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

하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 짐승이 뒤를 어슬렁 어슬렁 따라오는게 아닌가. 할 수 없이 따라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집까지 따라 오는지라 공은 기이하게 여기고 밥을 주고, 이 짐승을 기르기로 하고 하인들에게도 "절대 해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하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산짐승은 점점 키가 크더니 얼마 안가 큰 검은 기린으로 성장했다. 성품도 온순하여 하인들의 말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공을 편안히 모시는데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린을 가리켜 검은 암소라고도 하였다. 이 검은 소를 타고 서울로 나랏일을 보러 다니시는데 이 신기한 기린은 온양에서 서울까지 꼭 맹 정승을 태우고 다녔던 것이다.

지금도 이 기린이 나타난 그곳은 [기린고개]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으며, 이상한 것은 맹 정승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도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죽었다 하니, 비록 짐승일망정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후도 같이 마쳤다 하여 그 짐승을 공의 산소옆에 묻어 그 무덤을 흑기총이라 이름 지었다. 또한 흑우총이라고도 불리운다 한다.

한날 미물일지언정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 짐승은 낮은 아마 우리들 가슴에 길이 본보기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1369년(고려 공민왕 18년) 7월 나라안에서는 흉건적이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고, 2월 달에는 왜구가 내포, 전주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하던 때이다. 이에 대처하여 이 성계가 흉건적을 무찌르고 백성들은 왜구들의 침입을 함심하여 물리치니, 오랜 시달림에 백성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맹 사성이 있던 온양만는 흉건적이나 왜구가 아직 손을 뻗치지 못한 곳이라서 평온하기는 하였으나 집안의 어머니 병환은 더욱 심하기만 했다. 맹 사성의 정성어린 간호도 보람없이 그 해 무더운 여름, 어머니는 돌아가시기전 맹 사성을 앞에 앉혀놓고, "사성아! 나는 이제 조상님의 부름을 받아 먼 길을 떠난다. 어린 너는 내가 이 길을 떠나는데 훌륭히 뒷바라지를 해주어 고맙구나. 한가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떠난다해도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이 엄마는 먼 곳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만 너는 사랑방으로 나가 있거라."

사성은 비록 나이 10살이었을망정 영리하여 어머니의 말 뜻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나가지 않고 뒷걸 장독대로 가서 하늘을 쳐다 보며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다.

"설마, 어머니가....."

하고 안 믿으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말씀이 언제까지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원래가 돌아가실때는 가족들을 불러 들이는 법이나, 사성의 어머니는 자기가 눈감는 꼴을 어린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생각엔 죽으려고 신음하는 그 추악한 모습을 어린 것
에게 보여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사성은 어머니에게 마음껏 효도하지 못한 슬픔에 7일간을 물 한모금 먹지 못했다. 이어
장례가 끝나고 사성은 어린 동생 사경을 데리고 어머니의 유물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무덤옆
에 막을 하나 손수 지었다. 평소 어머니를 모시던 때와 다름없이 늘 그 무덤옆에 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입김을 받는 감촉을 느꼈다. 무덤속의 어머니가

"사성아!"

하고 찾는 것만 같은 나날이 계속 되었다. 동지 선달 매서운 추위가 살을 에이는 것 같은
때는 땅 속에 잠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추위는 불효로 지은 죄를 씻어 주지는 못할 것
같았다.

1370년, 이 때로 나라 안은 흉건적과 왜구들로 나라가 평온치 못했으며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나라 정치를 돌보지 않아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나라안은 몹
시 어지러웠다. 사성은 나라가 되어 가는 꼴도 어린 가슴에 걱정이 되나, 어머니의 무덤 곁
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원히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무덤옆에 한 그루의 잣나
무를 심어 어머니를 위하듯 정성껏 가꾸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무렵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잣나무를 들어받아 가지가 갈라지고 껍질이 벗겨져 도저히 살아날 수 없으리만치
상했다. 사성의 슬픔은 컸다. 마치 어머니를 짓밟히는 것 같았다. 그는 목을 놓아 울었다.
그의 슬픈 울음은 산천에 메아리쳤다. 그때였다. 난데없이 범이 나타나 도망치는 멧돼지를
한 입에 물고 흔드니 멧돼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이래서 사람들은 사성의 효성에 하늘이 감
동하여 것처럼 사나운 멧돼지를 호랑이가 죽여 그 나무는 다시 무성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온 나라에 퍼져서 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가상히 여겨 온
국민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효자 정문을 세워 주었다.

맹 사성은 3년동안 묘막을 짓고 어머니 무덤옆에서 시묘를 살은 것이다.

아! 이는 거룩한 효심의 극치이니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복하리로다. 그의 넋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 있으니 그 깊은 뜻 영원히 살아 숨쉬리.

칠월 칠석도 사흘밖에 남지 않은 무더운 여름 날이다.

7월 장마도 그 위세가 물러간 지가 어제의 일이거늘 무더위는 한창이어서 방안에 앉아
고불의 이마에선 땀이 흘러 책장을 적신다. 고불은 늦더위를 참기 어려운 듯 읽고 있던 책
장을 덮어 두고, 이마의 땀을 닦으며 문밖으로 나갔다.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한줄기 불어
오는 것이다. 고불은 대문 밖을 나가 집뒤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 그늘 사이로 북서
풍이 지나가니 온 몸의 식은 땀이 몸시도 상쾌하다. 호미 한 자루를 손에 든 채 밭으로 향
하고 있는 고불의 모습이 정승이 아니라 촌 농부 할아버지다. 열무를 갈아 놓은 밭에는 드
문드문 잡초가 7월 장마에 싱싱하게 열무 사이로 뻗어가고 있었다. 고불은 폭양이 내려 쪼
이는 밭에 앉아 김을 매기 시작했다.

언제나 고불은 고향에 내려오면 자기가 손수 백옥으로 만든 피리를 불기도 하고, 밭이나
뒤의 뜰에 나가 김을 매주기도 했다.

음악에 천재적 소질을 가진 그는 항상 피리를 불어 방문하는 관원이나 선비는 동구밖에서
도 그 소리를 듣고 고불이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방문한다는 것이다.

마침 현감이 새로 부임했다. 관내에 재상이 사시는지라 부임하자마자 고불을 찾아 뵈는
것이 도리어서 그 날도 현감은 아전과 노비 몇 사람을 데리고 고불의 대문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행랑을 찾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감을 뵈려고 왔다."

"대감은 지금 뒷밭에 가셨으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것 없다. 어디 계신가? 내가 가서 뵈리라."

하고 현감은 고불이 김매는 밭을 찾아 갔다. 이때는 마침 오후 한 시경이었다. 김매던 고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소관은 새로 부임한 온수현감이온데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한다. 고불을 현감을 보고,

"이 더위에 다른 일도 바쁠 텐데 먼 길을 와주어 고맙군."

하고 대답한 후 현감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현감은 자기 소개를 낱낱이 고하고 서로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어 안에서 점심 식사가 나왔다. 현감은 생각하기를 정승댁이고 오랜 세월을 고관으로 지내셨으니 굉장한 음식이 나올 줄말 알았다. 그러나 상 위에 나온 반찬은 파국과 보리밥, 그리고 고추장에 간장뿐이다. 현감은 놀랐다. 한나라의 재상이 이와같이 보리밥에 거친 반찬이라니, 혹시 대감이 일부러 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승의 앞이니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먹는 중 마는 중 보리밥을 먹어 넘긴 현감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 그로 그럴 것이 한 고을을 담당한 원님이고, 또 원래가 부잣집에 태어난 귀공자인지라 생전 처음 먹어 보는 식사였다. 이어 고불이 웃으면서,

"현감은 이런 거친 음식의 참맛을 모르시는구려. 조정의 대신과 지방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위로 왕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 만백성에 앞서 모든 일에 검소해야 하고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일지라도 근면과 배고픔을 몸소 체험하여 백성과 괴로움을 같이 겪을 때 그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이오."

하고 조용히 타이르니 현감은 머리를 숙인채 무릎을 꿇고 크게 반성하는 빛을 보였다.

그 길로 이 현감은 온양으로 돌아가 고불에게 크게 감동하고 자신의 정성을 오직 백성을 위한 일에만 쏟아 고을을 잘 다스려 온양 고을에서는 처음 만나는 현감이라 하여 그의 공적을 높이 기리어 비석을 세웠다 한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던가. 그의 청렴결백은 오늘까지 전해 지어 아직도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고 있으니, 이 아니, 따를 바가 아니던가!

맹 정승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머니 산소에 성묘차 온양엘 자주 간다. 그날도 집에 급히 볼 일이 있어 한양을 떠나 온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때는 마침 가을이라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들에는 벼가 황금물결을 이루고 농부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도 아랑곳 없이 벼베기에 바빴다.

한양을 떠난 지가 너댓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먹구름이 해를 가리더니 철답지 않게 소낙비가 쏟아진다. 맹 정승은 어디 피할 데가 없나 하고 앞을 바라보니 저편에 정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정승은

"옳지, 저 정자에 가서 잠시 비를 피했다 가자" 하고 급히 뛰어 정자에 올라가 한쪽 구석에 서 있으려니까 어떤 선비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거만스럽게 왔다갔다하며 현판에 쓰인 시를 훑어 읽어 읽고 있었다. 맹 정승은 "부모 덕분에 글깨나 한 선비로구나!"하고 무심코 한쪽 난간에 앉아 긴 담뱃대를 꺼내 피어 빨고 있는데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니 빗소리에 질세라 그 선비는 목을 돈구어 시를 읽다가 거만스럽게 정승을 돌아본다.

"여보 늙은이, 당신이 이런 좋은 글맛을 알까? 참, 글이란 좋은 거야."

하고 의기양양하게 정승을 앞잡아 본다. 참으로 꼴볼견이었다. 그러나 정승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며

"무지한 늙은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고 공손히 말하고

"그게 무슨 뜻이오니까?"

하고 그 글의 뜻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응, 이 글은 옛 시인들이 경치를 바라보고 흥히 나서 읊은 시인데 시 중에서도 산 글이지."

하며 거들먹거리며 글 뜻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정승은 나이가 그 사람보다 열살이나 더 먹어 보이는데 글 줄이나 안다고 아니꼽게 반말을 하는데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그가 하는 꼴을 더 보려고 정승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거 참, 좋은 글이올시다. 선생님이 아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좋은 글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맹 정승은 원래 본바탕이 조정에서 일을 볼때는 할 수 없이 관복을 차려입지만, 집에서는 정승이면서도 일반 옷을 입었으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낡아서 형편 없다고 한다. 정승은 항상 말하기를

"백성을 위해서 나랏일을 보는 사람이 어찌 좋은 옷에 좋은 음식과 좋은 집이 필요한단 말이오. 굶주리는 백성과 헐벗은 백성, 병에 신음하는 백성, 이렇게 고생이 심한 백성들이 지금도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으로 받는 관원이나 고관들이 호화로워서야 어찌 백성들을 대할 수 있겠오."

하고 청렴결백하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래서 그날의 정승 옷차림이나 태도도 평민적이었으며, 평소 정승의 생활태도이기도 했다. 그런데 마침 정승이 떠나신 뒤 비가 쏟아지는지라 하인들이 집을 나서서 도착한 곳이 정자 앞이었다.

정자 저편에서 말과 가마를 이끌고 하인들이 모두 정자앞에 모여 정승에게 절을 하니, 그 행차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거만을 떨며 글깨나 하는 척하던 그 선비가 이상히 여겨 그 중의 하인 한 사람을 불러

"뉘 행차냐?"

하고 물으니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맹 정승의 행차다."

하는 바람에 이 선비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새파래지며 사시나무 떨듯 한다.

"대감을 못 알아보고 지은 죄 죽어 마땅하오이다."

하고 용서를 빈다.

정승은 웃으면서 그 선비를 일으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사람은 아는게 많을 수록 말이 적고 행동이 바르게 되는 것이니, 이후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익는 벼가 되도록 하시오. 보아하니 글 재주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 주오."

하고 위로했다.

아는 것이 힘이라면 모르는 것은 약이라, 아뿔사 이 선비 아예 글을 몰랐다면 그런 망신은 안 당했을 것을.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오만한 마음은 모든 일을 그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만을 버리고 겸손과 성실로써 우리의 삶을 알차고 충실하게 뛰어나가야 하겠다.

고불의 연세가 75세가 되자 더 이상 벼슬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나랏일에 지장이 될 것을 생각하여 세종대왕에게 벼슬자리를 물러 나겠다고 했으나 세종은

"대신 같은 훌륭한 분이 조정에더 머물러 나랏일을 보살펴 주고 나를 도와주시오."

하고 말렸다. 그러나 고불은 몸이 주도로 쇠약해지고 나이 75세니 이제 농촌으로 물러가 남은 생활을 휴양이나 하다가 가겠다고 극진히 말씀드려 마침내 좌의정으로 그 벼슬의 막을 내리셨다. 세종은 중요한 대신을 조정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늙은 몸에 무리한 부탁을 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허전함은 마치 한 팔을 잃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성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관리들앞에서 고불의 공적을 치하하고 아쉬운 송별잔치를 성대히 끝마치고 하는 말이

"비록 경이 조정을 떠난다 하더라도 가끔 조정에 나와 나를 도와주도록 하시오."

세종의 간곡한 부탁에 고불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어찌 소신의 몸 편함을 생각하오리까? 비록 이 자리는 뜨더라도 가끔 뵈옵고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하곤 온양에 와서 한가한 날을 보내면서 지은 시가 저 유명한 강호사시가다.

고불의 나이 79세가 되자 몸은 더욱 허약해지고 기운과 힘이 다하고 병이 들어 한양에

가서 치료를 해보았으나, 끝내는 그 보람도 없이 세종 20년(1438년) 10월 4일 세상을 뜨셨다.

고려말 세상이 어지러울 때 태어나시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 고불은 오로지 청렴결백으로 백성을 위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였다.

고불의 인생은 나라 사랑과 부모께 효도, 훌륭한 정치, 따스하고 자애로운 마음씨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은 터였으니 이로 조선의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10월 초사흘, 고불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세종은 모든 대신들을 데리고 문상을 하였으며, 장례식은 나라에서 치루어 주기로 하여 고불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고불의 영구를 고향인 온양으로 옮기던 중 경기도 광주 땅 판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상여를 덮었던 명정이 날아 올라 순식간에 공중을 맴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 명정이 날아간 곳을 찾아 따라가 보니 직동이라는 곳의 언덕에 떨어졌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세종은,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다. 그 곳은 좋은 자리일테니 그 자리에 고불의 산소를 써라."

이래서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직리에 산소를 정하였다 한다.

인자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슴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 불교의 윤회설이 사실이라면 맹 정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가 일깨워 주시리라 생각하여 오늘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맹 사성의 출생지는 지금의 개성이다.

공민왕 8년 7월 17일에 출생하셨는데 공의 자는 자명(自明) 휘는 사성, 호는 고불(古佛)이며 맹 회도의 아들이다. 문하부시중 최 영장군의 손서이시며 당시로서는 최고 관직에 계신 분의 손녀딸을 공에게 허락하셨으니 공의 인품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치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다.

공이 우의정에 이른 어느 날, 공은 한식날 온양의 산소에 성묘하려고 갔다가 상경하는 길이었다. 때가 마침 초봄이라 만물이 동면에서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대지를 힘차게 박차고 솟아 오른 새싹들이 수줍은듯 햇빛을 받고 진달래가 만발하여 산천 경계가 파랗고 붉게 치장을 할 때이다.

공은 언제나 그 차림새가 서민적이어서 정승으로 계시면서도 입고 다니는 옷은 언제나 허술한 시골 노인과 다름없었다. 누가 보아도 그를 정승이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했다. 초봄 햇빛이 따사롭고 꽃내음과 새싹을 스쳐오는 훈풍을 호흡하면서 검은 소를 타고 어슬렁어슬렁 한양을 향해 가던 중 봄비를 만났다.

"봄비는 움이 트는 젖줄이다. 봄비를 좀 맞은들 어떠하랴."

하시며 검은 소등위에 의지한채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가랑비는 어느덧 소낙비로 변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공은 그제서야 용인의 마을 어귀를 걸어가고 있었다.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지니 이제는 할 수 없이 소 등에서 내려 문패도 없는 어느 주막집 처마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미 옷은 젖어 있었다. 젖은 옷을 툭툭 털면서 소는 추녀 밑에 소를 매어두고 방으로 들어 갔으나 옷이 젖었으니 좋은 자리엔 앉을 수도 없거니와 아랫목에는 이미 어떤 건장한 사람이 하인을 여러 사람옆에 앉히고 점잖게 앉아 있었다. 공은 젖은 옷을 여미며 구석진 곳에 가서 앉았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랫목에 앉은 사람은 돈 깨나 있는 부잣집 아들인 것 같다. 언뜻 보아도 그 옷차림이라든지 종을 거느리고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잣집 아들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공을 보고,

"영감님, 편하게 앉으시지요."

하고 제법 거만하게 권한다. 그제서야 서로 낯모르는 사람끼리 말문이 열린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영남사람으로 녹사시험을 보려고 한양에 가는 사람이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주룩주룩 퍼붓고 예나 지금이나 비오는 날에는 그런대로 낭만이 있어 방에 틀어 박혀 장기를 두거나 내기 화투를 하거나 조용히 오락을 즐기는 것이 상례이다. 이

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로 말문이 열렸으니 심심풀이를 하기에 이르러 장기를 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았다.

촌부자 아들이 서울 친척집에, 하나는 촌노인이 서울 아들집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기를 몇 번 두는 동안 그 선비는 약간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기를 두는 족족 영낙없이 지는 것은 선비쪽이니 말이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이번에는 선비의 하인들마저 훈수에 끼어들어 이놈저놈 훈수를 들었으나 허사였다. 장기는 점입가경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물러달라는게 일수였다. 그래서 공은 물러줘가며 장기를 두니 그들은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노인의 장기수에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하여 장기 두기를 자진 포기하는 것이었다.

"저 노인장의 장기는 당할 수가 없구려, 그만 둡시다."

하고 스스로 물러 났다. 그들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는 모양이다. 다른 기구로 대결을 할려니 오락 기구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노인의 입성을 보아하니 양반은 양반이나 일자무식일게다. 어디 이번에는 글자를 써서 묻고 대답하는 놀이를 해보자."

하고 앞잡아 본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묻고 대답하는 말 끝에 [공]자와 [당]자를 달아서, 주고 받기로 하였다. 먼저 고불이 묻기를

"무엇하러 서울에 가는 공."

하니

"녹사시험 보러간당."

하고 대답했다. 사성은 웃으면서

"내가 벼슬에 임명해 줄공."

하고 물으니 그쪽에선 또,

"놀리는 것은 옳지 않당."

이렇게 주고 받는 사이 어느덧 날이 개이고 그들은 서울로 와서 각기 길을 나누었다. 며칠 후의 일이다.

공이 정사로 관아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시험을 보려고 들어 왔다. 공은 물었다.

"어떻게 되었는공."

그 사람은 그제서야 사성이 우의정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빛이 변하며, 물러나 옆드려 대답하기를

"죽어 마땅합니당."

하고 대답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주막에서 비를 피하다가 만난 그는 맹 사성이 재신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내놓아 재신들도 감동하여 모두 웃었으니 이런 인연으로 그 선비를 녹사에 임명해 주었으며 뒤에 사성의 힘으로 여러 고을 벼슬을 하였다는 일화이다.

이에서 우리는 거만은 나중에 커다란 것을 잃는 독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기 위해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한, 그리고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5] 맹 희 도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고불 맹 사성을 생각해 보자.

맹 공은 효성이 지극하고 나라를 사랑한 충신이요 효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그 맑은 윗물은 따라 올라 가보려 한다.

고불의 아버지인 희도는 상서공 [유]의 아들로 서기 1337년에 낳으셨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도 그 해에 낳아 동갑내기이다. 이름은 희도요 호는 모전 또는 동포이신데 모전이라는 호는 지금 배방 중리란 지명이 당시 모전이라고 되어 있어 지명을 따서 모전이라 했다.

28세 때인 공민왕 14년, 서기로는 1365년 문과에 급제하시어 전교연령 한성윤 한림어사를 거쳤다. 희도는 임금의 비서인 전수연합 지방읍의 우두머리인 한성윤 웅림어사라는 학문

을 다루는 기관에도 계시었다.

동포 공이 24세 되던 해 아들 문상공을 낳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러하다.

그 당시 공께서는 과거 공부를 위해 개성에서 공부하시던 때였다. 하루는 부인되는 홍양 조씨가 홀로 잠을 자는데 꿈에 부인이 커다란 해를 집어 삼키는 꿈인지라 깜짝놀라 깨어 날이 밝아오자 시아버님 되시는 문서공 맹유에서 문안드리며 그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문서공께선

"거 참 괴이하구나. 하필 그리도 뜨거운 해를 집어 삼키다니!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 일체 다른 사람에게겐 말하지 말아라."

하고는 하인배를 불러

"너, 냉큼 도련님한테 가 도련님을 모시고 오는데 공부에 열중하는지라 그냥 오진 않을 테니 내가 병이 위중하다 일러라."

이리하여 송도에 있던 공께선 부랴부랴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니 부인 조씨에게 태기가 있어 문상공을 낳았다.

이것으로도 공의 효성을 가히 짐작하는 바이다.

27세에 과거에 급제하시었는데 조정에서는 권 근과 선후배지간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워 후에 권 근이 공의 아들 문상공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권 근은 "공은 문행이 맑고 탁월해서, 탁월한 지조와 절개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처럼 공께서는 학문을 무척이나 사랑하시었다. 또 산수를 좋아하시어 설화산 아래에 작은 집을 짓고 좌우에 책을 수북히 쌓아 즐기시어 더러는 거문고도 타시고 학문과 더불어 소요하시었으며 쏟아지는 시냇물에 다리를 놓아 그 이름을 자하동 선인교라 지으셨다. 이 경치 좋은 선인교 아래 흐르는 맑은 물에 도취되어 시도 짓고 읊으시며 한가로이 사셨는데 이조 3대왕 태종께서 여러 번 나와서 일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으셨다. 대신 아들 사성을 내어 이조에 일하게 하였다.

공은 또한 벼슬을 하는 문성공으로 하여금 채마밭을 가꾸게 하므로 그의 부하 직원으로 하여 사표가 되게 하시었다.

공의 효를 여기에 소개하려 한다.

공의 효는 부모의 생존시나 돌아가셨을 때나 한결 같았다. 그리하여 상사때는 흠을 저다가 묘를 이루고 죽을 마시며 묘 옆 노막에서 살았고, 항상 묘 옆에 옆드려 죄를 사과하고 정성껏 모시니 묘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풀이 나지 않았고 산소옆에는 흰 까마귀가 살아 공의 효를 상징하는 듯 하였다.

송도에서는 효자정문을 세워 공의 효를 추모하고 또 이조때는 온양에 다시 효자정문이 세워졌다.

공께서는 고려에 대한 충 또한 지극하여 사성을 마지못해 이조에 내어 보내며 조상님들께 언제나 사죄하는 듯한 마음으로 한없이 울었다 한다.